

읽을거리

No.3



크리스천 시각으로 본

명화속 이야기

벌 받는 루벤스/ 들라크루와

Girl Seated in a Cemetery 1824

西安出版社



<https://www.westpeace33.net>

벌 받는 루벤스

들라크루와

“**이** 벌거벗고 지친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아버지, 또 온 인류와 그들이 태어났던 장소와 시간까지 저주하고 있었다. 지옥의 악마 카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몰아세우고는 능장을 부리는 자들을 노(櫓)로 후려치며, 가을날 나뭇잎 날리듯이 아담의 저주받은 후손들을 끌고 갔다. - 이 죽음의 혼들이 갈색으로 물든 강 물결을 헤치고 채 강기슭에 닿기도 전에 저 편에는 또다시 새로 몰려든 영혼들이 벌 떼같이 모여 울부짖고 있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단테가 1304년부터 쓰기 시작한 [신곡(神曲)] 속의 지옥이 500년이 지난 1822년 들라크루아의 화면에 다시 연출되었다.

[“단테와 베르기리우스는 카론의 인도를 받아 지옥 도시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를 건넌다. 죄인들은 배에 달라붙고, 또 그 위



The Barque of Dante, 1822.

에 올라타려고 애쓰고 있다. 단테는 그들 중에 피렌체 사람이 몇몇 있음을 발견한다.”]라는 긴 원제를 달고, 당시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찬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긴 했지만 들라크루아의 천재적 재질을 인정하는 부분에는 의견이 나뉘어질 수 없었다.

특히 이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구성들이 지니는 강력한 암시와 연상의 비밀은 ‘들라크루아 미술’의 특징과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회화와 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예술의 특성을 혼합함으로써 ‘문학적 주제의 회화적 접근’이라는 들라크루아의 야심에 찬 표현 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해 준다.

결국 그는 보들레르로부터 ‘문학적인 작가’라는 평을 받게 된다. 한 때 시인이 되길 원했던 그는 문학적인 세계에서 영감을 얻어 그의 조형 세계를 개척해 나아갔다. 들라크루아의 흥미를 가장 많

Self-Portrait, 1837.



이 끝났던 작가로는 단테 이외에도 바이런, 괴테, 셰익스피어, 웰터 스코트 등이 있었다.

들라크루아(Ferdinand-Victor-Eugene Delacroix 1798-1863)는 프랑스 샤랑트현(縣) 생 모리스에서 명문가 외교관의 아들로 출생했다. 그러나 그의 유년기는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고,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에 의하면 그가 어린 나이에 교수형, 화형, 참수형, 독살, 교살 등의 온갖 인간의 어둡고 악한 야만의 세계를 경험해야만 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평범하지 않은 성장 과정 속에서, 16세에 고전파 화가인 P.N.게랭에게 그림을 배웠고, 1816년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부터 루브르미술관에 다니면서 P.P.루벤스, P.베로네제 등의 그림을 모사하였고, T.제리코의 작품에 매료되면서 그의 진로가 결정되었다.

1819년 제리코가 발표한 [메두사호(號)의 뗏목 : Raft of the Meduse]은 그에게 낭만주의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감격과 영향을 주었다.



The Raft of the Medusa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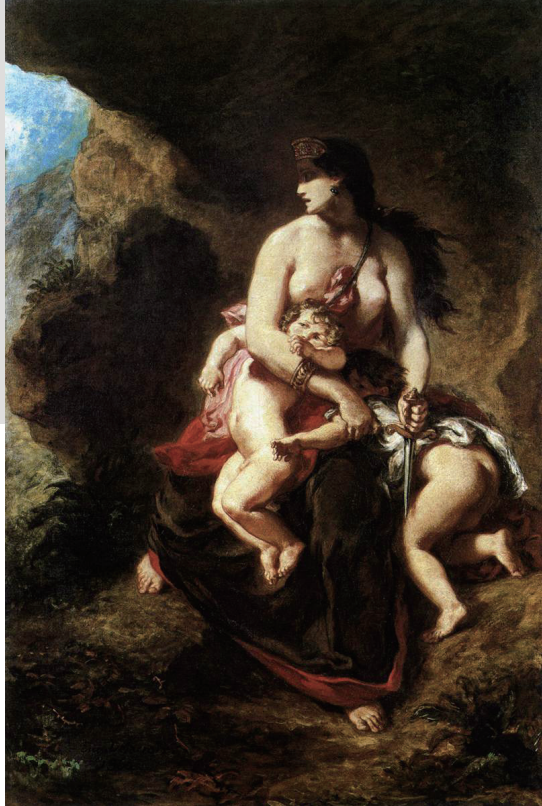
“극적인 장면의 연출!”

이 말은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결코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그의 마음에 형성된 조형의지와 그 욕구는 화면상의 표현 대상을 평범하고 안일하게 나타낼 수 없게 한다. 그의 화면은 폭풍과 같은 운동감을 나타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 앞에 머물게 하며 화면에 전개된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몰입케 한다.

이 힘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작가의 마음에 형성된 세계이며, 그리고 잠잠할 수 없는 감동의 세력이 화면에 구성되고 분출된 결과이다.

들라크루아는 문학, 역사, 신화, 성경 속에서 얻은 이야기를 화면에 옮겨 놓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옥, 전쟁, 사망의 세계를 주제로 택하였다. 그리고 그 주제들을 통하여 인간의 야만, 혼돈, 절망, 격노, 두려움, 질투 등을 연출해 냈다.

예를 들어, 많은 그리스 신화 중에 그는 [격노한 메데이아]를 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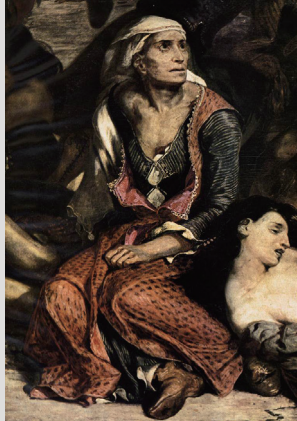


Medea about to Kill her Children, 1838.

여 그 이야기를 화면이 올려놓았다. 메데이아는 영웅 이아손의 부인이자 마법사이다. 메데이아는 남편이 이국에서 생활하던 중 그 나라 왕의 딸을 새 아내로 맞아들이자 불같은 질투에 사로잡혀 그녀를 독살하며, 그래도 증오의 불길이 진정되지 않아 자기 자식들마저 죽이기에 이른다.

이 메데이아의 이야기는 야만적 질투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남편에 대한 질투가 자기 몸에서 나온 생명조차 살해하는 정도라면 이 질투심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악한 세력이 아닐 수 없다.

왜 들라크루아는 이런 짐승 이하의 야만을 선택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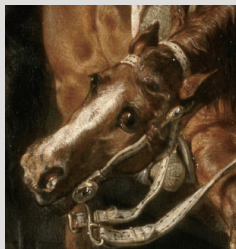
The Massacre at Chios, 1824.-detail

중요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악한 세력이 인간 모두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들라크루아의 선택은 단순한 화면 처리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감상자의 순간적인 흥미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미친 극히 내밀하고도 중요한 사건들이다.

빅토르 위고는 [크롬웰] 서문에 적었다.

“현대 작가들 가운데 단테와 밀턴 둘만이 셰익스피어만큼 위대하다. 그들은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우리의 문학이 극적인 색깔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작품에는 기괴한 것과 숭고한 것이 뒤섞여 있다.”

‘기괴한 것과 숭고한 것……’. 이것은 기성의 전통과 대항해 싸우는 낭만주의 전쟁의 기호이다. 같은 시대에 속하는 위고와 들라크루아는 동일한 열광의 대상(특히 셰익스피어), 그리고 관습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욕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들라크루아는 위고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Prise de Constantinople
par les Croisés (le 14
avril 1204), 184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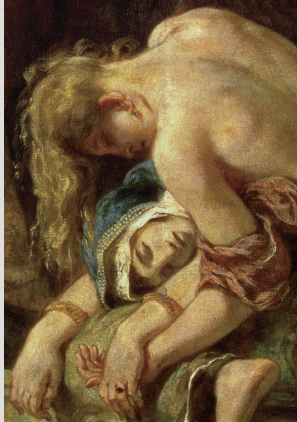
“전통의 비수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야만인들의 쾌락을 위해 우리 자신을 과감히 도살합시다…….”

이런 들라크루아가 화면 위에 연출해 내고자 한 것은 시적 암시와
시각적 충격의 관계이다. 그는 이를 위해 문학이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인간 내면에 흐르는 리얼리티, 전통이나 관념에 가려져 있
고 눌러 있는 인간 본질의 세계를 과감하게 표출해 내었다.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입성 *Prise de Constantinople par les Croisés*]

이 그림에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제4차
십자군 원정대가 1204년 4월 12일 군마를 타고 대대적으로 콘스
탄티노플로 입성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주문자 루이 필립 왕은 과거 프랑스의 영광을 기리기 위함이었겠



Prise de Constantinople par les Croisés
(le 14 avril 1204)–Detail, 1840c.



루벤스(Peter Paul Rubens)
Portrait of Helena Fourment, 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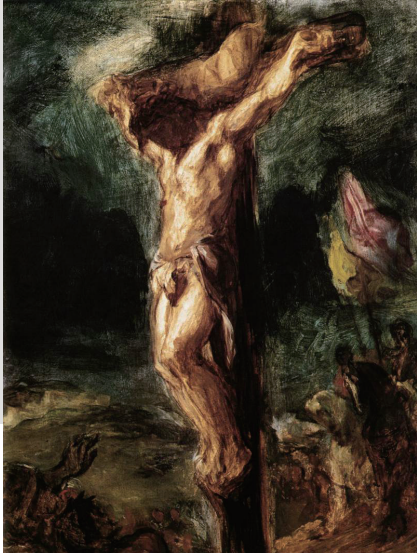
지만, 감수성이 남다른 이 화가는 정복자들의 빛나는 영광보다 약탈과 살육의 흔적들, 그리고 피정복민들의 절망과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이 전쟁은 기독교 군대가 기독교 도시를 약탈하는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화면 중심에 말을 탄 정복자가 배치되었다. 그런데 왕이 탄 말의 표정이 지극히 민망해 보이는 것은 필자의 독특한 감정인가?

들라크루아가 경험한 인간의 고통과 절망적인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세계가 결코 아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감각해야 할 세계이고 피할 수 없는 세계이다. [격노한 메테이아]도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 놓은 이야기이다.

“벌 받는 루벤스”라는 말이 있다.

들라크루아는 루벤스의 미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루벤스는 그의 풍부한 색채와 양감, 관능적 형태 등으로 인간 육체에 대

Christ on the Cross 1845



한 낙관적인 세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들라크루아는 루벤스처럼 관능적이고 화려한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주제에 있어서는 고통 받는 지옥을 표현했다. 활기찬 색채의 변화와 인체의 관능적인 표현은 같은데, 루벤스의 인체는 낙관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들라크루아 화면에 나타난 인체는 고통을 받는데 사용된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벌 받는 루벤스’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는 성경의 전도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들라크루아의 관심은 분명히 초상집에 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Christ on the Cross 1845]

들라크루아의 관심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신약성서의 주요한 장면들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수난....., 성숙한 화가 들라크루아가 놓칠 수 없는 모티브이다.

화면에 연출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내면의 세계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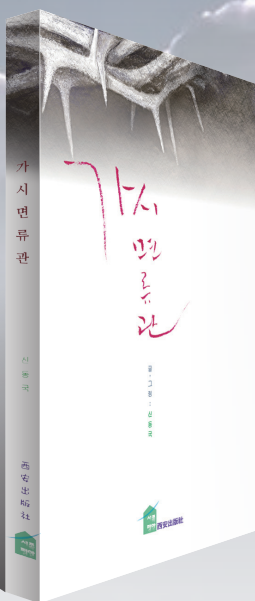
Christ on the Lake of Gennezaret 1854

의 강력함 암시의 언어로 설명되고 있다. 박제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작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생생하고 뚜렷하게 시적 암시와 시각적 충격을 통하여 나타난다.

[갈릴리 호수 위의 그리스도 Christ on the Lake of Gennezaret 1854]

광포한 풍랑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세계를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바다에 던져 버리고 풍랑에 시달리며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희롱하는 풍랑, 그리고 '저 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 안에 쉬고 있는 그리스도.....



가시 면류관

이천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얹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는 군병들…….
이 능욕의 세력은 군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둘러 싼 무리들, 또 멀리 숨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나의 육신에 그 세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향나무가 짙는 도끼에 향기를 묻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내가 있다.
주께 씌운 가시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불 살라 없어져야 하는 가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출3:2> 빛을 발하는 것처럼…….

—머리글 중에서—

신동국 글, 그림
사륙판, 240p
서안출판사
ISBN 979-11-955771-0-1
<https://www.westpeace33.net>
shin@westpeace33.net, westpeace33@daum.net



이 곳 ↑
에서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